

기사검색

세부검색
전체기사
날짜별기사
기자별기사

독자코너

독자한마디
독자재보

뉴스트래킹

트래킹 신청
트래킹 관리
트래킹 목록

전화번호검색

GO
Let's 114

고객센터

메일클럽
구독신청
결제안내

전국내일신문

수도권본부
서부본부
동부본부

내일신문

회사개요
회사조직
회사위치
메일문의

광고안내

광고약관
광고상품
광고영역
광고문의

Home > 경제 > 정책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재정립 필요”

문화부 ‘순수예술 육성 토론회’ ... 문예기금 활용방안 논의

2008-06-04 오후 2:10:10 게재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사전에서 사후로, 직접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광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3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순수예술분야에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창작비용의 보전 하는 것보다 전략적인 목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바닥이 보이고 있어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을 통해 ‘생활속의 예술’ 프로젝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3년 전 민간자율의 합의제 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예술지원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재 40여 개에 이르는 세부사업을 단순화하고, 공연사업 지원의 경우 ‘일회성 프로젝트’에서 ‘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대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문화예술위는 장르별로 구성돼 장르 이기주의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어 장르별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2기 문화예술위는 현장 전문가와 예산, 기금, 회계 등 재정분야 및 기획, 인사, 조직분야 등에서 역량을 발휘할 행정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윤정국 총무아트홀 사장은 “예술위는 예술행정 경험인사 40%, 현장 예술가 30%, 기업 메세나·법조인 등 타분야 인사 30%로 구성해야 한다”며 “다양한 현장 예술가가 참여하는 모임을 특위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세준 숙명여대 교수도 “심의위원회에 예술애호가에 가까운 일반인을 포함시키면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성 민예총 상임이사는 “정부와 위원회간 관계 재정립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구시대적인 예술위 통제장치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장인 김달진씨는 “작품이 창작되는 단계만 지원하지 말고 관람자가 감상하고 평론하는 순간까지 다년간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혁수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은 “문화예술 지원기관들은 ‘공평한 지원’의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채 단순 지원업무만 하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돌아켜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6월 중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기 위원회 성과 및 한계를 집중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키로 했다.

박민권 문화부 예술정책과장은 “예술발전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예술현장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발적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다”며 “정부의 창작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더 개최해 풍부한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 쓰기

나도한마디 전체보기

top back

→ 시사

예측과 전망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정세용 칼럼
‘쇠고기 고사’와 ‘춧볼민심’

논설
[내일시론]이명박정부 100일의 경제성적표

논설
[신문로]주한미군 3년 근무제도의 의미

논설
[내일시론]쇠고기 파동의 교훈

CJ 뉴트라와 건강한 무자년을~

+ 자압기증정

오메가3 EPA,DHA, 감마리놀레산, 세이퍼스구메시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지압기를 선착순 50분에게 드립니다.